

# “정보화사회 주도하는 새 문화운동을”

## 90년대 사회의 전개와 출판문화의 발전

金璟東

서울대 교수·사회학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權炳臺)는 22, 23일 충남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90년대의 출판발전전략'이란 주제로 제11회 출판경영자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金璟東교수(서울대)의 「1990년대 사회의 전개와 출판문화의 발전」이란 기초강연과 全元在교수(외국어대)의 「출판유통의 현대화 전략」, 劉載天교수(서강대)의 「우수 청소년도서 개발 및 지원 육성방안」, 權五鉉씨(상공회의소 상담위원)의 「노사협력관계의 새로운 좌표」 등이 발표됐다.

다음에 김경동·유재천교수의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 ‘문화의 軟性化’와 그에 대한 도전들

사실 1990년대라 해야 앞으로 반년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므로 이미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셈이다. 미래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의 무대이다. 따라서 장래에 대처하는 자세가 적극성을 띠도록 미래를 통제할 개연성을 더해준다.

그러한 발전의 전략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회변동의 추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유효도가 높아진다. 출판문화는 동시에 그와 같은 변동의 방향, 진행속도·성격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상호작용에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이같은 변동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의 軟性化’이다. 경제성장 덕분에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양식이 바뀔으로써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늘게 되어, 당장의 생계유지나 물질적 충족보다는 내면적이고 부드러운 질적 삶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되는 현상을 문화의 연성화라 일컫는다.

정보화가 초래할 문화의 연성화는 결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저항과 긴장을 일으키는 요소들과 만나야 한다.

新媒體의 보급은 대중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테지만, 여기서 대중문화가 본래 지니고 있는 표준화된 획일성·규격성이 도전받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대중문화가 다원화하고 개성화한다 해도 내실을 중시하는 고급문화와 충돌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저급한 대중문화 쪽으로 편향·집중하게 될 때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고등문화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둘을 조화시켜 대중문화는

고급화하고 고급문화는 대중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한 1980년대에 급격하게 확산되어 온 민중문화가 기존의 지배적 문화에 도전하면서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민중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화된 문화가 젊은 세대의 의식에 중대한 흔적을 남기게 될 문화적 세력으로 등장하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여 현존문화와 변증법적 조화를 꾀하는가 하는 과제가 닦쳐오게 된다.

이같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변동은 매우 역동적인 국제적 환경의 테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 여기에 고질적인 남북관계의 압력이 특히 국내의 반미이데올로기의 상승과 관련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문화적 변동의 맥락에서 정보화의 추세 속에 선진정보사회의 통신개방압력과 소프트웨어문화의 독점에 의한 문화적 식민지화 압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도 큰 쟁점이다.

### 소프트웨어 개발 위한 협동적 노력 긴요

출판이란 지식을 창출하여 전파하기를 원하는 저자와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독자 사이에서 守門將의 구실을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보화’라고 하는 조류를 대전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문화의 연성화, 즉 소프트웨어가 핵심적 지위를 누리는 문화의 변화를 용납하지 않을 수 없음을 뜻하며,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른 매체의 변혁에 직면해야 함을 말한다. 인쇄문화가 전자문화에 의해서 위축되다가, 시각적 매체에서 통각적 매체로의 대전환이 온다든가 하는 변화를 받아들일 태세가 긴요해진다.

평면적인 인쇄매체에 집착하여 단일하게 현상유지나 하겠다는 자세로서는 발전은 고사하고 퇴영도 면할 수 없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이야말로 발전의 핵심적인 관건이 될 터이므로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재정적 투자와 유인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출판계가 아직은 대개 영세한 경영규모를 갖추고 어려운 환경 속에 간신히 버티어 나가고 있기는 하나, 집합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에 의해서라도 기업에서 말하는 소위 ‘연구개발’이라는 활동을 해야 한다.

정보사회의 산업이 추구하는 바를 간주려 ‘輕薄短小化’라 하는데, 모든 상품이 가볍고 얇막하고 짧막하고 작아지는 추세를 말함이다. 이것을 출판문화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으



「1990년대의 출판발전전략」을 주제로 열린 出協의 제11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6월 22~23일 儒城)

로 나타날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모양새와 색깔, 크기와 무게, 전체적 짜임새, 심지어 그러한 그릇에 담긴 아이디어의 내용과 그것의 조직화까지도 디자인의 영역에 포함시켜 고안해야 한다.

정보화가 본격 추진되면 책도 이제는 인쇄·제본된 형태로 가지고 다니며 읽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의 모니터와 프린터의 인쇄로, 또는 팩시밀리로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을 띠게 된다. 출판업계가 이를 주도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개발하여 정보망의 시장을 장악하는데 입장서는 것이다.

정보화의 또 다른 차원은 정보의 양적 증폭과 관계가 있다. 이미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휘말려 들고 있거니와, 이 현상이 자아내는 문제점은 정보의 質관리와 정보의 선별적 수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보의 질의 관리란 그것을 생산·전파하는 쪽의 문제이고, 정보의 선별적 수용의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쪽의 문제이다. 문화의 수문장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출판계는 마땅히 정보의 질관리와 선택에서 빼어난 지혜와 훌륭한 良識을 심본 발휘해야 한다.

### 이데올로기적 편향성 극복해야

특별히 1990년대에 주목해야 할 일은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의 혁명적 문화운동세력의 향방이다. 출판계는 우선 이 세력의 출판물 수단으로 삼은 문화운동과 어떻게 결합하면서 관계를 정립·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이데올로기 지향의 문화운동이

전체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문화운동이 출판문화의 모습을 띠고 전개되는 것도 중요하다.

출판계는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힘을 모으고 밖으로는 뜻을 같이하는 다른 세력들과 연대하여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사실 출판계 안팎에서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자료를 출판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모든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출판계는 정보화시대의 신계급인 인문주의적인 지성인과 기술적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출판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의 질관리와 선별작업, 급진이데올로기적 편향을 극복할 수 없다.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한 관건이 인간개발인 동시에, 출판문화의 발전으로써 인간개발은 더욱 활력을 얻는 셈이 된다. 사회의 여러가지 변동이 출판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판업이 위에서 살펴본 과제들을 수행코자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발전에의 노력을 기울이면, 출판문화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정보사회에서 퇴색하는 사양문화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선도하는 구실을 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출판문화는 연성화하는 사회문화의 변동추세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다원화하는 사회문화에 풍요한 지적 정보의 양식을 넉넉히 대주는 寶庫가 되어야 한다.